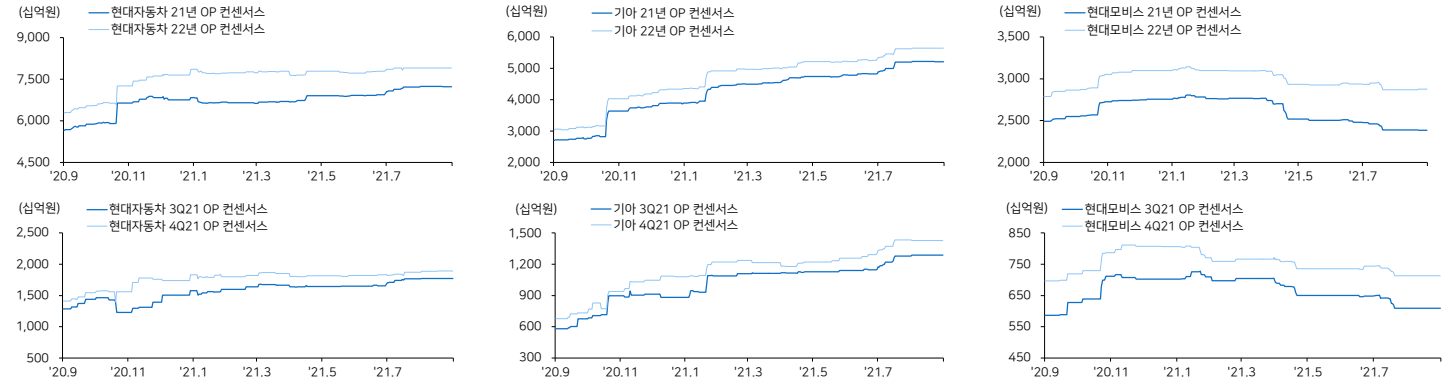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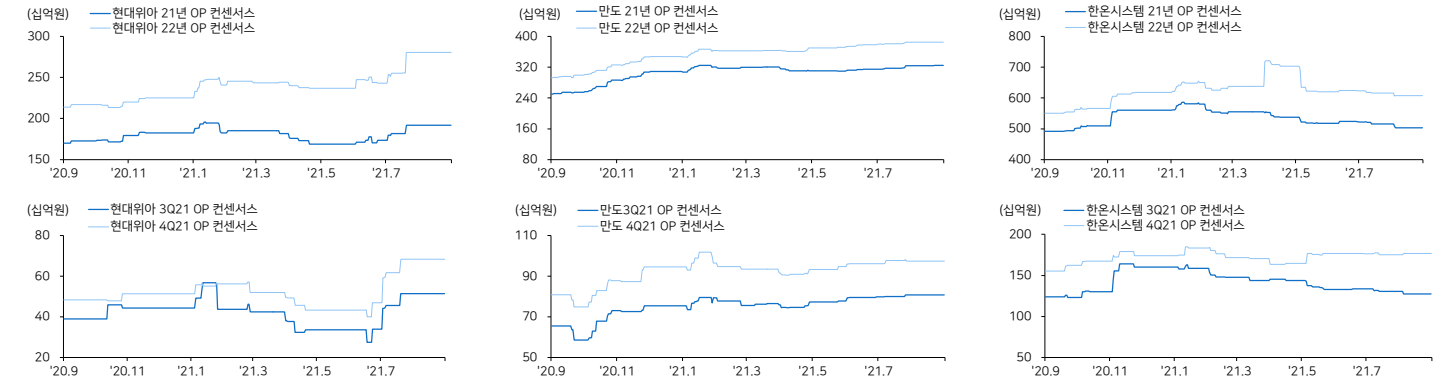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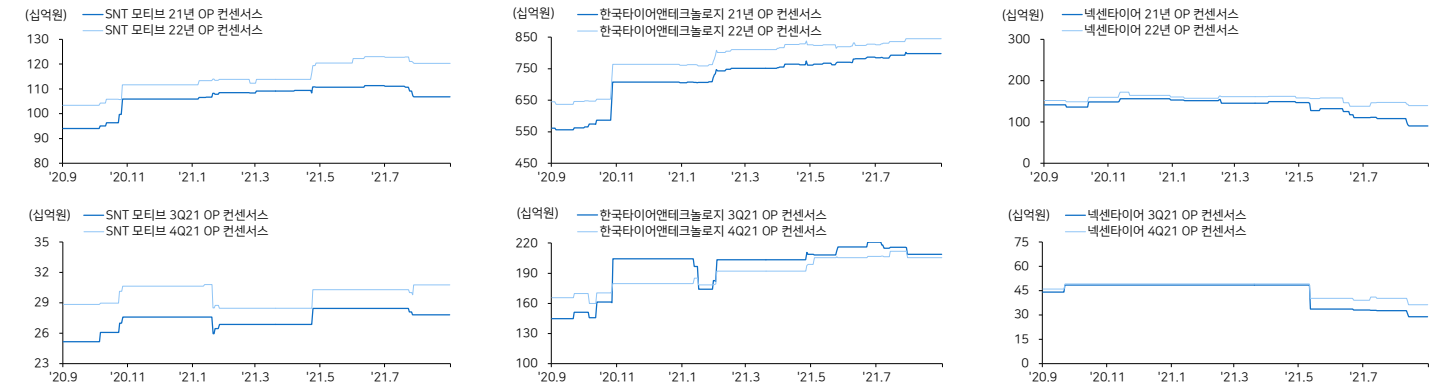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기아 올해 RV 판매, 처음 승용차 넘어설 듯 (동아일보)

글로벌 SUV 수요가 늘면서 현대자동차의 RV 판매량이 증가 추세. 8월 국내 RV 판매량은 44,055대로 전세 판매량(92,037대)의 47.9%에 달하며, 올해 누적 판매량 역시 RV가 35만 8,504대로 승용차(35만 0,841대)보다 우세. <https://bit.ly/3n4St5b>

기아, 친환경차 판매 첫 1만대 돌파...EV6, 단숨에 3위 (뉴스1)

기아가 8월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친환경차를 10,349대를 판매하며 처음으로 1만대를 돌파함. 지난달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한 첫 전용전기차 EV6는 단숨에 최다 판매 3위를 기록함. 9월 EV6의 본격 판매량 증가가 전망됨. <https://bit.ly/3t1VkrT>

IT 도시 뿔뿔히...현대차·BMW·벤츠 '탄소제로 모빌리티' 대격투 (한국경제)

6일(현지시간) 개막하는 글로벌 최대 모터쇼 'IAA 모빌리티 2021'에서 현대차/벤츠/BMW 등 완성차 업체들의 탄소중립 전략이 발표될 예정. 뿐만 아니라 인텔, 퀄컴 등 반도체 공룡들과 자동차 부품업체들도 참가할 계획. <https://bit.ly/2WPg12W>

Apple Car production gets potential 2024 target amid talks with Toyota (Teslarati)

애플이 2024년 생산할 계획으로 알려진 애플카의 대량 생산을 위해 토요타를 방문하여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지난달 배터리 공급망 확보를 위해 LG화학, SK이노베이션과 논의한 바 있다고 알려졌다. <https://bit.ly/3DRZ09e>

현대차, 독일 8월 점유율 5.2% 수입차 1위...전기차 '2위' (THE GURU)

현대차는 지난달 독일 시장에서 1만 여대를 판매, 5.2%에 달하는 점유율을 기록해 처음으로 수입차 브랜드 중 1위를 차지함. 전기차 점유율은 7.5%로 폭스바겐에 이어 2위를 차지함. 향후 아이오닉5 등의 인기로 더욱 성장할 전망. <https://bit.ly/3zReTDu>

현대차, 알제리 대신 모로코 아프리카 거점 선택 (THE GURU)

현대차는 정치정 불안정으로 인해 알제리 사업을 철수하고 새로운 아프리카 거점으로 '모로코'를 낙점함. 모로코는 자동차를 주요 수출품목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산업에 적극 투자 중이며, 다수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진출한 상태. <https://bit.ly/3yldN2t>

코로나 타지자 인기 폭발한 후...현대차·쌍용차도 뛰어들었다 (한국경제)

COVID19의 확산으로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캠핑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지난해 캠핑카 개조 승인은 7,709대를 기록하며 YoY +251% 급성장함. 국내 캠핑카 업계에서는 현대차 스타렉스, 스타리아, 포터, 기아 봉고를 주로 사용. <https://bit.ly/38KXGa6>

GAC mulls NIO-like battery swap across all new models (CNEV Post)

중국 완성차 기업 GAC그룹은 향후 출시하는 모든 새로운 모델에 배터리 교체 시스템 도입을 적극 고려 중이라고 밝힘. NIO의 배터리 교체 시스템 초기 성공과 중국의 정책적 지원으로 배터리 교체 모델이 더 많은 플레이어를 끌어들임. <https://bit.ly/2YpMbCR>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